

삶터 · 일터 · 심터로 발전하는 충남 농어촌 · 농어업을 꿈꾸며

박진도 | 충남발전연구원장



민선5기 충남도정은 이른바 3농(농어촌 · 농어업 · 농어민) 혁신을 도정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그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골치 아프고 해법도 마땅치 않은 농어촌 문제를 도정의 전면에 내세웠다가 별 성과도 없이 끝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우려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러한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우리나라 농어촌의 현실을 이대로 두고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발전할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고도성장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하였고 대도시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별 손색이 없지만, 농어촌의 모습은 선진국과의 격차가 너무도 크다. 이는 우리 충남의 현실을 보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10년간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고, 우리나라 수출의 중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일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도 전국에서 울산 다음으로 높다. 충남의 이러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수도권 대기업의 공장들이 진출한 아산, 천안, 당진, 서산 등 서북부의 4개 시 · 군이고, 이들 지역의 성장력은 당연히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높은 경제성장이 반드시 충남 도민의 높은 소득과 소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성장과 삶의 질 사이에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4개 시 · 군을 제외한 전통적인 농어업에 기반한 충남의 나머지 12개 시 · 군은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외향적인 양적 성장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내발적 발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고, 그 핵심 과제는 농어업 · 농어촌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충남의 농어업 ·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충남 농정의 비전과 실천과제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가.

우선 농어업 · 농어촌의 비전과 농정목표를 혁신하여야 한다. 그 동안 중앙정부는 농어업 · 농어촌의 비전을 ‘세계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강한 농수산업’, ‘살고 싶고, 찾고 싶은 풍요로운 농촌’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민선4기 충남은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가치 중심의



고품질 농식품산업', '살고 싶고 풍요로운 농촌', '앞서가는 스마트 지방농정'을 농정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력 지상주의로는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민선 5기는 농어업·농어촌의 비전을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사회'로 그리고 농정의 목표를 도민과 농어민의 관점에서 '충남 농어민(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 '충남 도민과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기본권의 보장', '순환과 공생의 충남 도농 공동체 만들기'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충남 농정의 기본과제는 충남의 농어촌을 삶터(생활공간), 일터(경제활동공간), 쉼터(경관 및 환경 공간)로 발전시키고, 이를 담당할 농어촌의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삶터와 관련해서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도입하여 농어촌주민에게 최소한의 사회서비스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터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의 경제활동을 다각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농어업의 발전과 6차 산업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충남의 친환경농업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친환경농업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를 육성하고 지역순환형 농업생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친환경 무상학교 급식과 공공급식, 농민장터, 도시텃밭 운영 등 지역순환 농식품 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여야 한다. 6차 산업화를 위해서는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의 협력, 농수산물의 가공과 마케팅 서비스, 도농교류, 농촌관광의 확대를 꾀해야 한다.

쉼터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의 환경 및 경관을 회복하고 보전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농어촌이 단순한 생산 공간이 아니라 레저와 휴양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자연환경(자원) 뿐 아니라 유무형의 전통적 유산(역사, 건축, 문학 및 예술, 축제, 식문화 등)을 보전하고, 이미 파괴된 것은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충남의 농어촌을 삶터, 일터, 쉼터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 주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개발, 협동조합, 친환경 농업부문 등에서 이것을 이끌어갈 지역리더들을 육성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 및 실천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귀농 귀촌,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등을 통해 외부 인재를 수혈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제는 충남도와 농어민의 노력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는 난제이고, 충남 도민 전체가 충남의 농어업·농어촌을 응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 농산물 소비 확대 운동, 어린이 농산어촌 교육 프로그램, 도민의 농어촌 체험 및 봉사 등 도농교류 활성화 위한 운동이 무엇보다 필요하다.